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이 영 안, 이 혜 연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alee@suwon.re.kr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hyeyeon@suwon.re.kr

요약

- 수원시 공유냉장고 1호점이 2018년 1월 16일 설치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1월 기준 총 37개소를 설치·운영 중
- 사례조사 분석 결과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좋은점은 공유냉장고를 24시간 운영, 시민주도적 사업, 공유를 넘어 다양한 관심으로 발전한 점 등이고, 문제점은 음식 싹쓸이 개선, 공유냉장고의 청결과 관리 등임. 이에 따른 필요사항은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홍보, 공유냉장고의 확장을 위한 협업, 먹거리 공유를 넘어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 등임
-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성공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공유냉장고의 전달체계로서 기부자,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이용자들로 인해 시민주도로 운영·지원됨. 둘째, 공유냉장고 기반 및 운영으로서 먹거리가 단순함을 넘어 의제화, 시민공동체 주도로 공유냉장고 운영, 다양한 과정을 거쳐 중간지원조직 탄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규칙 제정됨

정책제안

-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발전적인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공유냉장고 운영 조직의 역할과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 수원시를 넘어 전국적인 인프라를 통해 공유냉장고 관련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전국 네트워크 포럼 개최 및 국제적 교류를 위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지
-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한 자부심 도모 및 사명감으로 운영하는 공유냉장고 운영자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증
-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공유냉장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시민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냉장고의 운영자, 기부자, 중간지원조직들의 만남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례 공유
- 수원시민의 먹거리 공유도시 선언을 통해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성공적 정착 및 다양한 사람들의 공유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

01 서론

연구의 배경

- 인간의 활동은 공동체를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공유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물뿐만 아닌 인간도 서로 협력하는 존재라고 논증하였으며, 아담스미스 역시 상호공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도 함(표트르 크로포트킨, 2005)
 - 사회자본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적 역량으로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공유냉장고가 시작된 곳은 독일로서 2010년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발렌 틴 투른은 ‘쓰레기를 맛보자(Taste the Waste)’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려지는 먹거리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일으킴

 -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푸드 셰어링(Food Sharing)’이라는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식 공유 및 절약 운동 등이 확산되어 ‘공유냉장고’의 밑바탕이 됨
 - 단어 그대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냉장고를 공유하는 것으로 누구나 음식을 자유롭게 넣고, 또 누구나 냉장고 안의 음식을 가져갈 수 있음
 - 전 세계 250여개 도시(추정)에서 공유냉장고가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처음 시작된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박종아, 2017)
- 시작은 소비단계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폐기를 줄이는 것이나 점차 사회적 접근으로 확장되어 누구나 건강하게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

 -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영양부족 및 영양과잉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먹거리 관련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유지 측면 등과 맞닿아 있음
 - 먹거리 보장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박종아, 2017)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우리 동네 사랑 나눔 공유 프로젝트’로서 이웃과 음식 나눔을 통해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잉여 먹거리를 줄여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

 - 2018년 1월 수원시 공유냉장고 1호점 설치, 이후 2023년 11월 기준으로 37개소를 운영 중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시민이 먼저 공유냉장고 설치 문의를 넣으면 협의회 측에서 장소와 관리 주체 등을 검토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데일리 팝, 2021.12.24. 보도자료)
 - 초기 설치 이후 5년이 지났으므로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현황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연구의 목적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지역사회의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됨
 - 지방정부,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기업, 먹거리 생산자가 함께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먹거리 공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먹거리 관련 정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결식아동지원, 무료급식 등으로 호혜적인 제도가 대부분이며, 공동체를 활용한 먹거리 관련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수원시 공유냉장고와 같은 먹거리 정책은 단순한 호혜적인 먹거리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먹거리 정책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의 낭비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전반과 성공요인 등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 제시
 -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37개소까지 공유냉장고를 설치한 수원시가 다양한 운영 현황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궁극적으로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02 공유냉장고의 의의 및 현황

공유냉장고의 이해

1) 먹거리 부족과 과잉

-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식품안전과 식량위기 등과 같은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먹거리 관련 위기의식 대두

 - 세계 식량 위기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 GRFC 2022)에 따르면 2021년 5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1억 9,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태로 지원이 긴급한 것으로 나타남(임송수, 2022)
 - 긴급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책과 공조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제사회도 지속가능발전 의제로 채택하며 주목

 - UN은 2015년 채택한 '우리 세계의 전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세부목표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 낭비를 1/2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을 감소' 포함
 -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톤의 식량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식량손실의 대부분이 소비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박종아, 2017)
- 수원시 역시 2017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SDGs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탄소배출량 감소, 호혜적 먹거리 공동체 복원, 먹거리 거버넌스 복원, 식량 낭비 감소, 푸드플랜 실현, 시민 먹거리 권리 보장, 자원순환 인식 증진, 음식물 쓰레기 감소, 사회적 가치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 해결,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접근권 보장, 마을 먹거리 복지 구축, 노인 빈곤 대응 등에 기여(박종아, 2017)
-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먹거리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수원시를 비롯한 세계 240여 개 도시에서 공유냉장고가 활약

 - 누군가에게 너무 많아 먹지 못한 먹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한 끼로 탈바꿈
 -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도출된 '공유복지'로서 공간, 경험, 지식 공유 등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형 및 무형자원을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함
- 수원시 공유냉장고 중심에는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조직 운영은 4개 권역별(북부, 중부, 서부, 남부) 대표 간사 체계로 구성

 - 2017년 12월 형성된 지원협의체에서 출발하여 2019년 '공유냉장고 운영자 네트워크'를 거쳐 2021년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로 자리 잡음
 - 공유냉장고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는 자발성, 주체성, 책임성, 실천력 등이 요구되므로 거버넌스 형성이 매우 중요함(고경호, 2023)

2) 공유냉장고 개념 및 목적

□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먹거리를 넣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랑 나눔 공유 프로젝트’

- 이웃과의 음식 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고,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먹거리를 줄여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
 -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경우에는 음식의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공유냉장고에 넣음
 - 공유냉장고에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필요한 음식을 편하게 가져가면 됨
- 공유냉장고에는 소비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을 보관 및 비치
 - 식재료, 야채, 과일, 반찬류, 통조림 등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빵, 떡 등과 같은 간식류, 곡류, 음식점 상품권(쿠폰) 등을 공유냉장고에 비치
 -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은 공유냉장고에 비치할 수 없음(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 공유냉장고 운영은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 약속이므로 1인 1개를 원칙으로 함

- 모두가 주인이므로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규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규칙에 동의하는 주민들에 한해 이용가능 함
 - 음식물 안전관리를 관리자가 하고 있으나 혹시 발생할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책임져야 함

국내 공유냉장고 현황

□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지방자치단체

- 구미시, 수원시 공유냉장고 벤치마킹 실시
 - 2023년 3월 말, 구미형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장, 민간 사회복지단체 단계자 등 민·관이 함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문
 - 수원시 공유냉장고 벤치마킹을 통해 구미시 특성과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사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힘(경북인터넷뉴스, 2023.03.31. 보도자료)

□ 2023년 9월 기준 전국 ‘총 78개소’

- 수원시는 독일의 ‘거리 냉장고’처럼 대체로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 혹은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9개소, 부산광역시 16개소, 인천광역시 9개소, 광주광역시 6개소, 경기도 30개소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홍성군 7개소, 전라남도 목포시 1개소

[표 1] 국내 공유냉장고 현황

구분		추진주체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노원구(1)	중계 2·3동 주민복지협의회	협의회
	송파구(2)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잠실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관악구(2)	서울대(다인데이블)	서울대(다인데이블)
서초구(4)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12)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금정구(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부곡2동 통장연합회
	사상구(3)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8)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동구(1)	-	-
광주광역시(6)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	안산시(2)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
	양주시(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회
	여주시(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회
	평택시(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위원장
	김포시(1)	대한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
	이천시(16)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시(1)	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시(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마을복지계획추진단	
	양평시(1)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광주시(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광사 운영위원회
충청남도	홍성군(7)	-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농촌과 자치연구소
전라남도	목포시(1)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성동성당 전남 서부종합재가센터

자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자료(2023.09.08. 기준)

수원시 공유냉장고 연혁 및 현황

□ 수원시 공유냉장고 시범 운영에서 대통령상 수상까지

○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

- ‘누구나’ 먹거리가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경기신문, 2023.09.19. 보도자료)

- 음식 자원 낭비 방지,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한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업은 2020년 제22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수상(경기신문, 2020.11.19. 보도자료)

□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 2018년은 시범기로서 1월 시범운영으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공유냉장고 첫 도입됨
- 2019~2022년은 확대기로서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양적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이 일어난 시기
- 2023년은 재정비기로서 수원시 공유냉장고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한 시기

[표 2] 수원시 공유냉장고 연혁

구분	주요 내용
시범기(2018)	음식물 낭비 감소 및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유냉장고 시범 운영(총 3개소)
확대기(2019~2022)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시 장·단점 파악 등과 전달체계 구축
재정비기(2023)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 및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 등 모색

자료: 고경호(2023), 커먼즈 및 지역혁신론 관점에서의 먹거리 공유활동 분석 p.53 토대로 수정 및 보완

□ **2023년 11월 6일 기준 수원시 '총 37개소'**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냉장고 '총 26개소'
 - 권역별로 북부(6개소), 중부(6개소), 서부(8개소), 남부(6개소)로 구분
 - 권역별 간사는 먹거리를 공유하는 관리자로서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 간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마을자원 활동가이자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내부자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총 7개소'
 - 2020년 7월 경 지동 창릉마을창작소(지동 창릉점)를 중심으로 시작
 - 최근 들어 운영 및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 중단 및 운영 중단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로 종료할 예정(수원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
-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냉장고 '총 4개소'
 -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는 올해 8월에 임의단체로 구성하여 정자동, 곡반정동, 구운동, 세류동 총 4개동에 공유냉장고를 설치·운영 중
- 공유냉장고 특성 상 운영이 유동적이므로 운영·관리 및 개소수에 대한 혼선이 있음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공유냉장고의 개소수는 39호점까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다음 [표 3]과 같고, 슬기로운 공유냉장고의 개소수는 10호점까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다음 [표 4]와 같음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및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공유냉장고의 임시 중단이나 중단 후 재개소 등으로 공유냉장고 호점과 실제 운영 개소수가 다소 다른 점이 눈에 띈

[표 3]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공유냉장고 현황

구역	구분	소재지
북부 (6개소)	8호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장안구 광고산로 509번길 13)
	9호점	진달래 삼겹살(장안구 창훈로 69)
	16호점	삼거리부동산(장안구 파장로 46번길 3)
	23호점	화서시장 바이크(팔달구 동말로 72 화서상가)
	26호점	경현식당(장안구 경수대로 983번길 11-2)
	36호점	정자1동 녹색가게(장안구 정자로 130번길 20)
중부 (6개소)	2호점	바른생협매탄점(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3호점	우만종합사회복지관(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주공아파트)
	7호점	모루망개떡(팔달구 세지로 444)
	11호점	꽃미경네삼겹포차(팔달구 중부대로 189)
	24호점	나눔도서관(영통구 매영로 42-1)
	33호점	S서울병원(영통구 중부대로 246번길 14)
서부 (8개소)	4호점	우리샘갈비(권선구 서호동로 26번길 12)
	6호점	상송마을 주공아파트(권선구 오목천로 15, 상송마을 주공아파트 112동 4경비실)
	10호점	밥이랑 면이랑(권선구 상탑로 120)
	18호점	대방재가복지센터(권선구 구운중로 17-1)
	19호점	아이세움 공부방(권선구 구운로 64번길 24)
	22호점	반갑다친구야 포차(권선구 상탑로 132)
	27호점	원조명동찌개마을(권선구 서수원로 523번길 30-7)
	38호점	수원탐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255)
남부 (6개소)	1호점	권선종합시장(권선구 세권로 185)
	15호점	세류동성당(권선구 세류로 22)
	25호점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매산로 89)
	31호점	버드네삼일교회(권선구 세권로 92-2)
	37호점	세류2동 골목상권지원센터(권선구 덕영대로 1126번길 52)
	39호점	수원여성문화공간 휴(권선구 동수원로 244번길 10)

자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자료(2023.10.20. 기준)

[표 4] 수원시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현황

구분	소재지
2호점	우리낙지한마당(팔달구 갓매산로 21)
3호점	얼시구절씨구(장안구 파장천로 52)
4호점	황실(장안구 팔달로 313)
6호점	CU(장안구 율전로 107번길 27)
7호점	매여울봉사센터(영통구 매여울로 10번길 14-6)
8호점	남수연화경로당(팔달구 창룡대로 30번길 9)
10호점	마음샘정신재활센터(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조직

□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초기 운영은 중간지원조직 및 외부에 의존

- 시범 운영 당시에는 중간지원조직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외부 지원(ex. 초중교의 기부 및 한 살림, 협동조합, 자원봉사센터 등)'에 상당부분 의존함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창립되면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

□ 2022년 1월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창립되면서 시민주도 운영으로 전환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는 상임대표, 운영위원회, 수원시 4개 권역별(북부, 중부, 서부, 남부) 대표 간사 체계로 구성
- 공유냉장고 관련 조정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협력적 기반의 체계로서 권역별 개별 냉장고 운영자 협력 모임인 '권역별 회의'와 권역별 간사들의 협의체인 '권역별 간사단 회의'가 있음
 - 활동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연 2~3회 정도의 정기 모임과 필요에 따라 수시모임 개최
 - 공유냉장고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메신저 채팅방(단톡)도 함께 활용 중(고경호, 2023)

[그림 1]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블로그



자료: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won2030sdgs>

□ 2023년 8월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가 창립되면서 또 하나의 공유냉장고 운영 조직 탄생

-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는 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연회비 없이 기부하는 기부회원으로 구분하며,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회원을 대표운영자로 명칭함
- 공유냉장고의 구분을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는 호점으로 하지만,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는 동 명칭으로 구분하여 정자동, 곡반정동, 구운동, 세류동으로 현재 4개소 운영

03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례조사

사례조사 개요

- 객관적 자료에서 확보되지 못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현황 등에 관한 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진행
 - 운영자(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및 권역별 간사,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매니저,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 회장 및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 기부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

[표 5] 사례조사 대상자

연번	구분	소속 및 역할
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운영자
②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권역별 간사	
③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권역별 간사	
④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권역별 간사	
⑤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매니저	운영자
⑥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 회장	운영자
⑦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 사무국장	
⑧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팀장	중간지원조직
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⑩	소상공인(개인)	기부자
⑪	사회적기업협회 상임대표	
⑫	교수	전문가
⑬	교수	

공유냉장고의 현재

1)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시작

- 2018년부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공유냉장고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시작
 -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19년에 총 5개 호점을 설치·운영하게 되었고, 꾸준하게 늘어나가면서 2021년 총 10개 호점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죠. 각 호점별 매니저와 보조매니저가 운영하고 있고, 매니저와 보조매니저는 자원봉사자이며, 각 자원봉사자별 회장도 역임하고 있어요. 보조금 없이 기부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눈 여겨 볼 수 있는 부분 이죠(#1, 운영자1)

2) 수원시 공유냉장고 Good

□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언제나 활짝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공유냉장고는 24시간 운영이 아니지만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냉장고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운영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이 ‘공유냉장고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매우 잘하고 있다는 점으로 꼽고 싶어요(#2, 운영자2)

□ 우리의 힘으로 운영하는 시민 주도적 사업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원시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음식을 다루고 있어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고, 이 또한 마중물(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가 일궈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매우 잘하고 있어요(#3, 운영자3)
- 철저한 시민 주도성에 기반한 활동을 지향하고, 행정 등은 지원역할에 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등에 의한 참여와 협력 등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매우 인상적입니다(#4, 전문가1)

□ 공유를 넘어 다양한 관심으로 발전

- 수원시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노년층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독거노인이신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단지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왕래가 없는 경우에는 종종 연락하여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자 순기능인 것 같아요. 또한 공유냉장고를 통해 오랫동안 소통한 어르신들의 식성 등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궁극적으로 먹거리 사각지대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5, 운영자5)
- 먹거리 공유를 넘어 자원봉사 기반의 시민 조직화 촉진 및 설치장소, 운영자(책임관리자), 먹거리 기부자 등 공유냉장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이런 과정들이 나눔과 공유·연대문화 등을 형성 및 확산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더욱 촉진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촉진 시킨다는 장점이 있죠(#6, 전문가1)

3) 수원시 공유냉장고 Bad

□ 음식 싹쓸이의 개선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이용하므로 이용규칙이 때때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CCTV를 설치하고 싶지만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연령층이 노년층인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불편할까봐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앞으로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7, 운영자5)

□ 청결과 관리는 언제나 중요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대체로 청결과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공유냉장고의 호점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호점의 경우에는 청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근처를 이동하는 다른 수원시민이 보게 될 경우에 수원시 공유냉장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현실적으로 매순간 공유냉장고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청결과 관리는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8, 운영자6)

공유냉장고의 미래

□ 여전히 공유냉장고에 대해 모르는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홍보 필요

- 수원시에 공유냉장고가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 모르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욱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는 식당 혹은 가게에 공유냉장고 가게 스티커(가칭)를 발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7, 운영자7)
- 초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심의 다양한 채널 및 경로를 통한 홍보와 공식 제안 활동 등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의 주목, 사회혁신 모델 등으로 평가받으면서 홍보·전파에 탄력을 받았죠. 이어 대통령상 수상까지 거머쥐고요. 이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꾸준한 지지와 격려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를 발전시켜 더욱 많은 수원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9, 전문가8)

□ 현재보다 더 확장되기 위한 협업

-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특성상 지역 소상공인 등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대기업의 마트(ex.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와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더욱 풍성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영역이라서 어렵다면 시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10, 운영자8)

□ 경계를 허무는 공유

- 시작은 먹거리 공유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를 넘어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용자의 대부분이 독거노인, 홀리스인데 그들이 낙인효과 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공유냉장고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주는 편의점 등과 같은 곳에는 기부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로 변화를 준다면 단순히 먹거리 공유를 넘어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11, 운영자4)

[표 6] 사례조사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수원시 공유냉장고 좋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냉장고 24시간 운영 • 시민주도적 사업 • 공유를 넘어 다양한 관심으로 발전
수원시 공유냉장고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싹쓸이 개선 • 공유냉장고 청결과 관리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홍보 • 공유냉장고의 확장을 위한 협업 • 먹거리 공유를 넘어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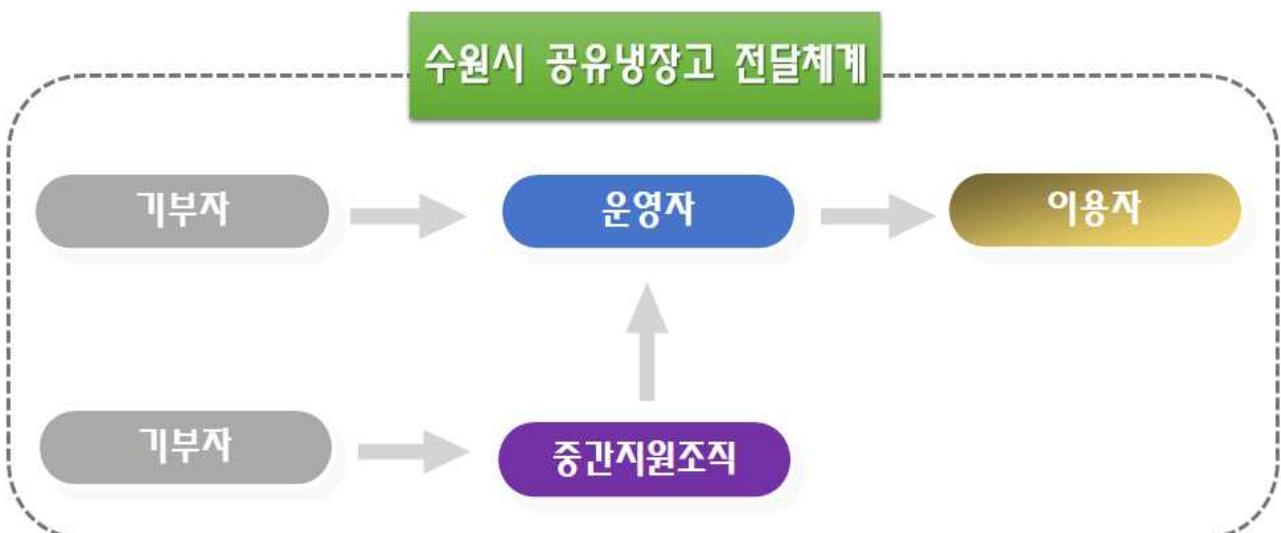
04 수원시 공유냉장고 성공요인

수원시 공유냉장고 전달체계

□ 공유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

- 누구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공유하는 ‘기부자’
 - 누군가에게 너무 많아서 넘치는 먹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한 끼로 변화함
 - 나누고 싶은 먹거리를 가까운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는 형태로서 유통기한 3일 이상 남은 음식으로 제한
-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운영자’
 - 수원시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
 - 특히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와 슬기로운 냉장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의 공유냉장고 운영자의 마을 자원 활동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 공유냉장고를 2017년 11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하여 UN 2030 SDGs 2번 목표와 관련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역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대표 실천 과제로 제시
 - 먹거리 관련 여러 주체의 상호교류, 공동 학습 등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혁신 활동, 이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형성, 더 나아가 수평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매개·촉진 기구로서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수행(고경호, 2023)
-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용자’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모두의 냉장고

[그림 2] 수원시 공유냉장고 전달체계



수원시 공유냉장고 기반 및 운영

□ 단순함을 넘어 먹거리 의제화로

-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먹거리 손실 및 폐기, 먹거리 취약계층의 접근성 증대와 연결하여 환경적·사회적 의제로 제시
 - 공유냉장고를 매개로 하는 먹거리 공유 활동은 폭넓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 실천 과제로 정식 제안되어 관련 위원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적 의제로서의 위상 또한 확보
 - 수원공유냉장고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원시 내에서 수원공유냉장고가 갖는 공동체 회복, 공유냉장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접근

□ 시민공동체 주도로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

- 철저하게 수원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 주도적 활동 지향
 - 수원시민의 자발성 및 자율성 등에 의한 참여와 협력 등으로 공유냉장고 운영 및 관리
 -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수원시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수원시민들을 더욱 많이 발굴해야 하는 이유임

□ 다양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 중간지원조직

-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초기에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 및 관리를 도맡아서 수행하였다면,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가 창립되면서 현재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유냉장고 활동의 확대와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 및 공유냉장고 운영자 대상 자원봉사 시간 인증

□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규칙 제정

-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규칙 제정을 통해 수원시 공유냉장고만의 특색을 담아냄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 규칙은 규범과 같은 것으로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음
 -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례 등이 더욱 널리 퍼지고 좋은 사례 및 선례로 남게 되면 이용자 규칙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수정·보완하는 작업 등이 필요

05 수원시 공유냉장고 발전방안

모두 함께하기 위한 노력

□ 공유냉장고 운영 조직의 역할과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

- 수원시 공유냉장고 발전의 핵심은 운영자와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는 각각의 공유냉장고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 역할임
 - 이와 함께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발전적인 모습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만의 논의 필요

□ 전국 네트워크 포럼 및 국제적 교류

- 수원시를 넘어 전국적인 인프라를 통해 공유냉장고 관련 사례 등 공유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냉장고를 보다 성공적인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단위의 공유냉장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례교류 및 데이터 축적 필요
 - 나아가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국제적 교류 등을 위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지 필요

□ 기부자를 위한 기부영수증 발급 및 운영자의 자원봉사 시간 인증

-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기부자를 위한 수원시의 배려
 - 공유냉장고 특성상 익명 기부가 높으나 향후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의 자부심이 생겨나도록 도모하고 기부자의 증가를 기대
- 공유냉장고 운영자는 헌신과 사명감으로 운영
 - 공유냉장고 운영자는 헌신과 봉사정신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운영자를 위한 지원 중 하나인 자원봉사 시간 인증이 필요함
 - 현재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받고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 공유냉장고'는 다양한 곳을 통해서 인증받고, '슬기로운 공유냉장고'는 아예 받고 있지 못함. 따라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한 곳에서 동일하게 자원봉사 시간 인증할 필요 있음

□ 공유냉장고 인식개선 및 홍보

- 기부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인식개선 필요
 -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공유냉장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
 - 버스정류장,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곳에 공유냉장고를 홍보하여 모든 수원시민이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운영자, 기부자, 중간지원조직들의 만남의 장 마련

- 시민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냉장고를 위한 운영자, 기부자, 중간지원조직 등을 위한 만남의 장 마련 필요
 -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례 공유 등을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은 수원시의 역할로서 장소제공 및 섭외 등 행정적 지원

□ 먹거리 공유도시 선언

-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한 단계 상향을 위한 방안으로 먹거리 공유도시 선언
 - 수원시만의 먹거리 공유도시 선언을 통해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공유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

참고문헌

- 경기신문. (2020.11.19.). '수원 공유냉장고'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 경기신문. (2023.09.19.). 25번째 '수원 공유냉장고',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
- 경북인터넷뉴스. (2021.12.24.). 구미시, 수원 '공유냉장고' 사업 현장 벤치마킹
- 고경호. (2023). 커먼즈 및 지역혁신론 관점에서의 먹거리 공유활동 분석: 수원시 공유냉장고를 사례로. NGO연구 8(2), 39-76
- 김가영. (2023). 공동체 기반 공유냉장고 활동분석, 성공회대
- 데일리팝. (2021.12.24.). 혼자 먹긴 많고, 버리자니 아깝고, '공유냉장고'를 아시나요?
- 박종아. (2017). 수원시 공유냉장고와 마을 공유의 복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임송수. (2022).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공유냉장고 사용법.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내부자료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won2030sdgs>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2023). 국내 공유냉장고 현황 내부자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현황. <https://www.suwon.go.kr>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우리동네에 공유냉장고가 생겼어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국내 공유냉장고 현황 내부자료(2023.09.08. 기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수원시 공유냉장고 현황 내부자료(2023.10.20. 기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자료
- 표트르 크로포트킨. (2005).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